2018년 제3회 평택3·1만세운동 학술토론회

평택3·1만세운동 100주년 성역화 및 조형물 건립 방안

일　　시 : 2018년 7월 13일(금), 오후 3시
장　　소 :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3층)
주최/주관 :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후　　원 : 평택시·평택시의회·평택문화원

진 • 행 • 순 • 서

■ 1부/개 회(15:00~15:20)

행사사회 : 최원길/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사무국장

개회사 ▌ 정수일/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장

축 사 ▌ 정장선/평택시장
▌ 권영화/평택시의회 의장
▌ 김은호/평택문화원장

■ 2부/포 럼(15:20~17:00)

토론회 좌장 :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기조발제 ▌ 이혜영/화성시 학예연구원
▌ 이태영/평택시 복지정책과장

토 론 ▌ 인효환/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감사
▌ 황우갑/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원형재/원심창기념사업회 유족대표
▌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대표

종합토론 ▌ 참석자 모두

■ 3부/폐회·공지(17:00~17:05)

행사사회 : 최원길/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사무국장

차 • 례

■ 인사말

평택3·1운동의 학술적 조명,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5
▌정수일/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장

■ 기조발제문

화성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방안 7
▌이혜영/화성시 학예연구원

평택3.1만세운동 100주년 성역화 및 조형물 건립 방안 31
▌이태영/평택시 복지정책과장

■ 토론문

토 론 ▌인효환/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감사 43

▌황우갑/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사무국장 47

▌원형재/원심창기념사업회 유족대표 53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대표 59

인 사 말

평택3·1운동의 학술적 조명,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전국에서도 가장 광포했던 만세운동으로 알려진 평택의 3·1운동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학술토론회에 이어 3.1만세운동 100주년 성역화사업과 조형물 건립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인해 우리지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성역화 사업을 통해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가 '가장 광포狂暴한 만세시위'라고 인식했던 평택의 3·1운동은 규모나 시위의 형태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평택의 3·1운동은 모두 22회에 걸쳐 6000여 명이 참여했고 사망 64명, 부상 174명이었으며 일제 경찰에 체포된 사람만 해도 257명에 달해 전국 3대 항쟁지에 버금가는 만세운동으로 펼쳐졌습니다. 평택의 3·1운동은 인근지역인 화성·안성·천안의 만세운동보다 앞섰고, 평택주민들은 안성의 원곡·양성 만세시위에도 참여해 인근지역 3·1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대한민국 3·1운동 100주년의 해를 맞아 우리지역의 3·1운동을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만세운동 유적지를 성역화 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지역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도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과 기조발제,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학계와 지역 전문가 분들, 그리고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이 평택의 독립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평택 3·1운동의 역사를 토대로 성역화 사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평택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3일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회장 정수일

기 조 발 제 ①

화성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방안

기조발제자 / 이 혜 영
화성시 학예연구원

화성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방안

이혜영/화성시 학예연구원

Ⅰ. 머리말

• 일제는 화성지역 3.1운동의 확산 방지와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보복과 탄압을 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발생. 따라서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은 3.1운동시기 일제가 우리나라 항일저항운동에 대한 저지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저지른 대표적인 사건

• 제암리 유적지는 지명도나 상징성에 있어 3·1운동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받고 있음

•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과 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증거하는, 독립정신·평화·인권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역사의 현장

• 현재 유적지의 활용 실태는 이러한 가치를 드러내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음

• 화성지역의 독립운동은 제암.고주리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독립운동의 중심지보다 학살과 피해의 현장이라는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음. 우리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독립운동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암.고주리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역동적으로 전개된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전모를 소개할 수 있는 기념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Ⅱ. 화성3.1운동과 제암·고주리학살사건

• 1919년 3월 1일 시작으로 3월26일~28일 송산, 3월 31일 발안, 4월 3일 우정·장안 지역은 공세적 시위 전개, 면사무소와 주재소 파괴 방화, 순사타살 등

• 일제의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 화성지역에 대한 검거반 파견과 시위주도자 체포, 방화 및 학살 자행 → 수촌리, 화수리, 송산 사강 등 화성전역에 방화, 학살, 제암·고주리 학살 사건발생

• 일제는 제암리 사건에 대한 왜곡 축소시도 :

“경기도 수원군 발안장에서 15일 오후 2시 내지 3시 사이에 약 400명이 군집 소동해 일단 해산시켰지만 다시 예수교도가 폭행하려는 차에 군경 협동으로 진압해 폭민 사망자 32명, 부상자 약간, 그 때 불이나 가옥 28동이 불탔다(천도교회당, 예수교회당을 포함)”

• 우쓰노미야(宇都宮太郎, 조선군 사령관) 일기 4월 18일자 : (중략) 사실을 사실로 처분하면 아주 간단하겠지만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독필(毒筆)을 휘두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학살 방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제국의 입장은 심히 불이익이 되며 한편으로는 조선 안에 폭민을 증가 조장시키고 또 진압에 종사하고 있는 장졸(將卒)에게 의혹의 생각을 갖게 하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저항하므로 죽였다’는 것으로 해 학살 방화 등은 인정하기 않기로 결정”

• 학살 이후 여론의 비난에 학살주범 아리타(有田俊夫) 군사재판회부 →무죄선고, 학살의 정당화, 합법화

• 제암리사건은 재한공관 및 선교사, 기자들에 의해 여론화, 임시정부는 각종 간행물에 제암리 사건을 비롯한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폭로, 일제의 만행 고발

□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의 역사적 성격

• 일본군의 무력에 의한 전형적인 민간인 학살

• 이민족의 식민지배에 저항한 적극적인 민족운동

• 우리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향한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건 : • 자유 평화, 인권과 정의

• 일제가 저지른 아시안 홀로코스트의 전형적인 사례: 비무장의 민간인들을 모아놓고 집단 학살

Ⅲ. 제암리 유적지 성역화 사업 추진현황

1. 제암리 유적지 연혁

일 시	내 용
1905. 08. 05	제암교회 건립(초가교회)
1919. 03. 01	3·1운동 시작
1919. 03. 31	향남면에서 발안 장날을 이용해 대규모 시위
1919. 04. 15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 제암리 습격. 제암교회에서 마을 주민 학살. 제암교회 및가옥 30여 채 방화(제암리 사건)
1919. 07	제암교회 복구(초가교회)
1938. 06	제암교회 재건축(양식 목조교회)
1946. 06	마을 입구에 3·1독립운동기념비 건립
1959. 04	학살현장(초가교회 터)에 3·1운동순국기념탑 건립
1970. 08	일본 기독교계 성금으로 기념교회 건축
1970. 10	유족회관 건립
1982. 09	제암리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향남면 도이리 산 31-1). 위령제 거행. 제암리에 23위 유해안치
1982. 10	제암리 유적지 정비사업 시작
1982. 12. 21	학살 현장(제암리 322-4번지 구교회 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299호로 지정. 명칭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1983. 09	순국 23위 합동묘역 조성, 3·1순국기념탑 준공
1984. 03	제암교회 내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완공
1984. 07	3·1운동순국기념탑 제막식
1993. 11	제암리 3·1정신교육관 개관
1995. 12	23인 상징조형물 설치
1997. 03	유적지 정비사업 시작
1997. 08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확정
1999. 04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공사 착공
2001. 01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준공
2001. 03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개관식
2003. 07	유적지 성역화 사업 시작
2003~2005	유적지 주변환경 정비
2017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 추진 중

2. 해방~1970년대 유적지 현황

1) 해방~1960년대 현황

• 해방~1960년대 제암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일대에 초가마을, 유적지, 제암교회 산재. 제암교회(1938), 3·1독립운동기념비(1946), 3·1운동 순국기념탑(1959) 존재

• 3·1독립운동기념비	1946년 6월 마을 주민들이 건립. 제암리 기념사업의 시발점. 비문 작성자는 월북 시인 박세영(1902~1989).
• 3·1운동순국기념탑	1959년 4월 일제 만행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19년 불에 탄 초가교회 터에 건립. 전면 제자(題字)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 비문 작성은 박종화, 글씨는 김응현.

1960년대 말 제암리 마을 전경	1960년대 말 제암교회 전경
3·1독립운동기념비 (1946년 건립, 비문 박세영)	**3·1운동 순국기념탑 (1959년 건립,題字 이승만, 비문 박종화)**

2) 1970년대 현황

• 1965년 10월 일본 기독교 방문단 제암교회 방문. 일본 기독교인들, 반성과 화해를 위한 기념교회 건립 기금 모금

• 1967년 12월 일본 기독교계, '한국 제암교회 소타사건 속죄위원회' 발족. 건립기금 모금 운동(1968.2~1969.4)으로 1천만엔 모금

• 1969년 4월 15일 기념교회 재건 기공식 거행. 1938년에 건립된 목조교회 철거

• 1970년 8월 제암교회 준공(현 순국기념관 자리). 건물 모양은 3·1운동 정신을 기린다는 의미로 '3'과 '1'의 글자를 형상화. 머릿돌에 일본인들이 모은 기금으로 건축되었음을 명시.

"이 교회는 1919년 3·1운동 때 제암교회의 소타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같이 화해함을 기념하기 위하여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건축"

• 한편 1969년 초 일본 기독교계의 모금으로 기념교회 신축이 가시화하자, 유족회의 입장, "일본인의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선열에 대한 모독이므로 결사 반대

교회건립에 반대하는 유족들

• 유족회와 제암교회, 갈등 해소방안 모색
• 제암교회측, 상생과 화해의 방안으로 교회신축과 함께 유족회관 건립 제안(건립 비용은 교회 측 부담). 유족회 수용
• 1970년 4월 유족회관(선열기념관) 기공식
• 1970년 10월 유족회관 준공,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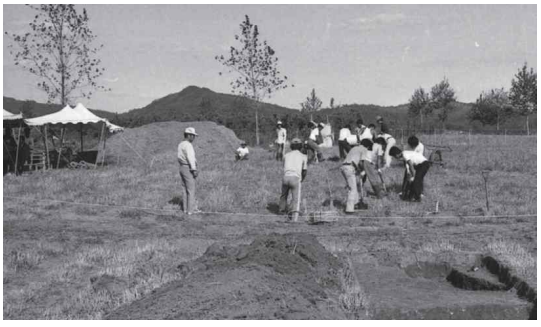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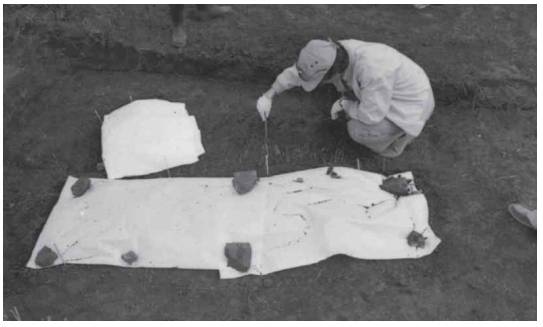
제암교회와 유족회관

3. 1980년대 유해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

• 제암리사건 직후 불탄 시신을 수습해 발안 도이리 공동묘지에 평토장으로 매장
• 1982년 9월 전동례 할머니(당시 85세), 최응식 할아버지(당시 89세)의 증언에 따라 매장지(향남면 도이리 산 31-1) 확인
• 1982년 9월 20일 제암리 순국선열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1982년 9월 21일 유해발굴단 구성(단장 김동현, 문화공보부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발굴작업 착수

제암리 순국선열 유해발굴터 표지석	증언자(전동례)

• 9월 21일 ~ 26일 도이리 산 31-1의 9개 지역 매장지에서 105명의 발굴인원을 투입 유해 수습. 기타 숯·못·철사·화염병(맥주병) 조각 등 제암리 사건 당시의 교회 내 흔적 출토
• 1982년 9월 29일 23위 합동묘역 조성(제암리)

도이리 유해발굴 현장	
	

위령제	
유해안장 및 23위 합동묘	

• 23위 묘 조성이후: 제암리유적지 정비사업(1982.9~1984.6) 착수, 제암리순국선열 묘역 조성과 기념탑 건립, 유물전시실 증개축 실시

봉분과 묘비명	

안내판과 묘역 조성후 3.1절 추도식(1984.3)	

1) 순국23위 묘역 조성

2) 3·1운동순국기념탑 건립

• 1959년 건립된 기존의 기념비가 제암리 사건을 상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념탑 건립과 주변환경 정비계획 수립

• 1982년 12월 순국기념탑 공사 착공, 1983년 9월 완공(높이 4.15m)

• 비명 '三·一運動殉國紀念塔'(3·1운동 순국기념탑)

• 1984년 3월 순국기념탑 주변 토지 매입 및 건물 철거

• 1984년 5월 순국기념탑 주변 조경공사

• 1984년 7월 10일 순국기념탑 제막식

순국기념탑 건립공사 현장 모습	조성 이후의 순국기념탑

3)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전시관) 증개축

- 제암교회 교육관을 증개축하여 전시관으로 활용(25평→32평)
- 1982년부터 자료수집 및 기념관 증개축 등 내부공사 완료(1983.12)
- 1984.3.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으로 결정
- 교회복원문제도 검토되었으나 문화재청의 복원계획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으로 취소

기념관 전경 및 내부	

4. 1990년대 유적지 정비사업과 기념관 건립

1) 3·1정신교육관

- 제암리 사건 현장을 국난극복의 산 교육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
- 1992년 4월 지상 2층 100평 규모(1층 50평, 2층 50평)로 추진
- 1993년 3월 공사 착공, 11월 완공. 명칭은 '제암리 3·1정신교육관'

2) 23인 상징조형물건립(1995)

• 제암리 사건 때 희생된 순국선열 23인의 넋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립

• 1995년 상징조형물 공모 심사

• 1995년 12월 건립. 23개의 크고 작은 돌기둥은 순국선열들의 혼을 담은 추모비. 높이 솟은 기둥은 무한한 발전과 자유를, 기둥의 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미래 세계를 상징

• 작품명 : '자유롭게 저하늘을'

3) 유적지 정비사업(1997 ~ 2000)

•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제암리 유적지 정비에 대한 필요성 제기
• 1996년 12월 유적지 정비사업 계획 수립
• 사업계획 :
기념관 건립, 교육관 증축, 초가교회 복원, 소공원 조성, 마을회관 신축 및 유족회관 철거
• 순국기념관 건립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 토지매입과 보상 등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연기 또는 중단
→ 초가교회 복원, 진입로 개설 사업 등은 중단
• 2000년 유적지 주변환경 정비
• 2001년 1월 순국기념관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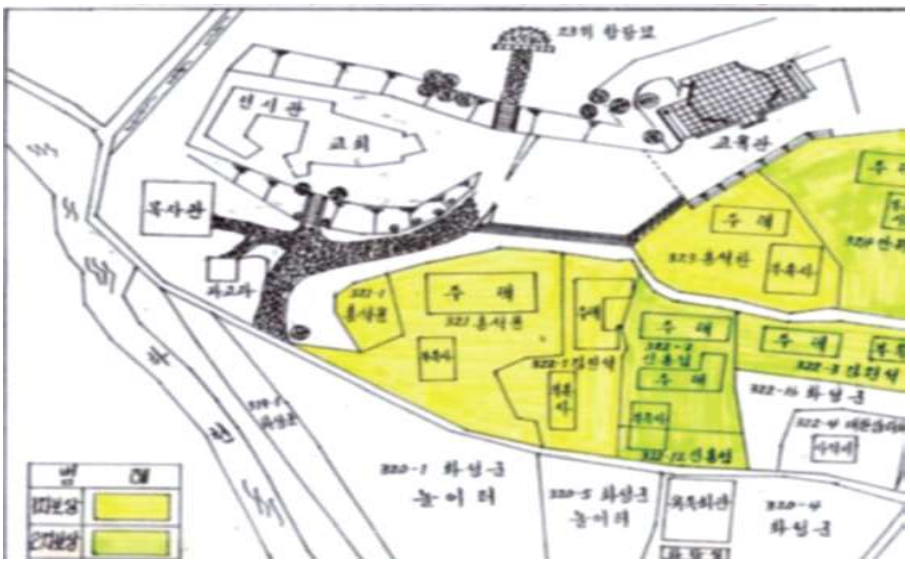
(1)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건립(2001)

• 1997년부터 시작된 2차 유적지 정비사업의 일환
• 제암교회 및 전시관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 일본 기독교계 성금으로 건립된 제암교회 내 전시관이 3·1정신을 훼손한다는 여론
•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유인 교회(기념관 포함)·목사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념관·교회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확정

(2)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1997.8, 문화재관리국)

• 순국유적지의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관을 건립하되 전시공간과 종교시설을 결합한 복합 기능의 기념관 건립
•기존 기념관, 제암교회, 목사관을 철거한 후 순국23위 묘역축을 비껴서 건립
•건축면적 : 연건평 360평 내외(평면적 180평 내외)
• 규모 및 기능 : 지상 1층은 기념관(180평 내외), 지상 2층은 교회(180평 내외), 지하 1층은 기계실·창고, 관리동은 별도 건축(40평)

1997년 초 유적지 주변 현황도 및 2001년 기념관 개관식



기념관 전경

6. 2000년대 제암리 유적지 성역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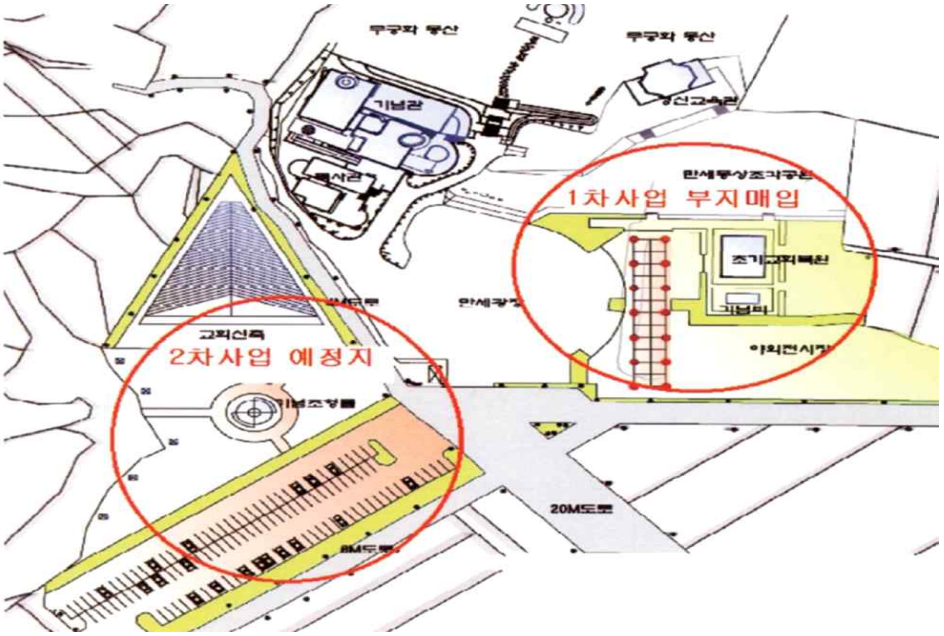
• 1982년 사적 제299호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유적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그러나 주변환경으로 인한 문화재관리의 어려움 , 뒤떨어진 시대 감각, 편의성 개선 등의 문제점 지속적 제기

• 토지매입을 통한 행사 광장·조형물 설치, 무궁화단지 조성 등 기념관 주변 환경정리

• 성역화 사업은 2001년부터 1단계(2001년, 전시시설 보강), 2단계(2002~2003년, 광장 조성 등 주변 정비사업·진입로 조성)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05년 사업 중단

토지매입예정지(1차) 및 성역화 사업계획



Ⅳ. 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2017~)

1. 제암리 유적지 현황 및 분석

제암리 순국유적지 및 기념관 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용도	비고
전시·교육	순국기념관	a	전시/시청각교육	지층외 3층
	3·1청신교육관	b	교육	2층
추모	순국23위 합동묘역	c	묘지	지상
기념	(구)3·1운동순국기념탑	d	상징	순국기념관 입구
	3·1운동순국기념탑	e	상징	초가교회터
	23인 상징조형물	f	상징	지상
	야외공연장	g	공연	지상
종교	제암교회	h	종교 활동	순국기념관 2층
	교회사택	i	주거	지상 1층
편의	주차장	j	주차	지상
	등나무 벤치	k	휴식	지상

2. 유적지 및 기념관 현황

1) 유적지 현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 50 일대
- 유형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99호
- 명칭 :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華城 堤岩里 3·1運動 殉國 遺蹟)
- 지정(등록)일 : 1982.12.21
- 시대 : 일제강점기
- 관리자(관리단체) : 화성시

2) 기념관 현황

- 대지면적 : 9,700.00㎡ 건축면적 : 859.75㎡ 연면적 : 1,460.6㎡

• 용도 : 전시 및 집회시설
• 지역 : 자연녹지지역
• 시설 : 기념관 - 지상 3층, 지하 1층(1,330.86㎡), 관리사 1층(129.74 ㎡)
※ 현재 기념관은 지하1층, 1층 시설만 사용 총면적1,306㎡ (395평)
• 철근콘크리트조 및 지붕틀목구조
• 전시시설과 종교시설(제암교회)이 혼합된 복합건물

3) 기념관 시설

구분	시설명	비고
지하1층	기계실: 변전실, 발전기실, 수장고	기념관
1층	전시시설: 안내공간, 시청각실,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수장고 등 관리시설 : 사무실 편의시설 : 화장실, 음수대 등	
2층	종교시설 : 대강당(예배당), 사무실	교회사용
3층	종교시설 :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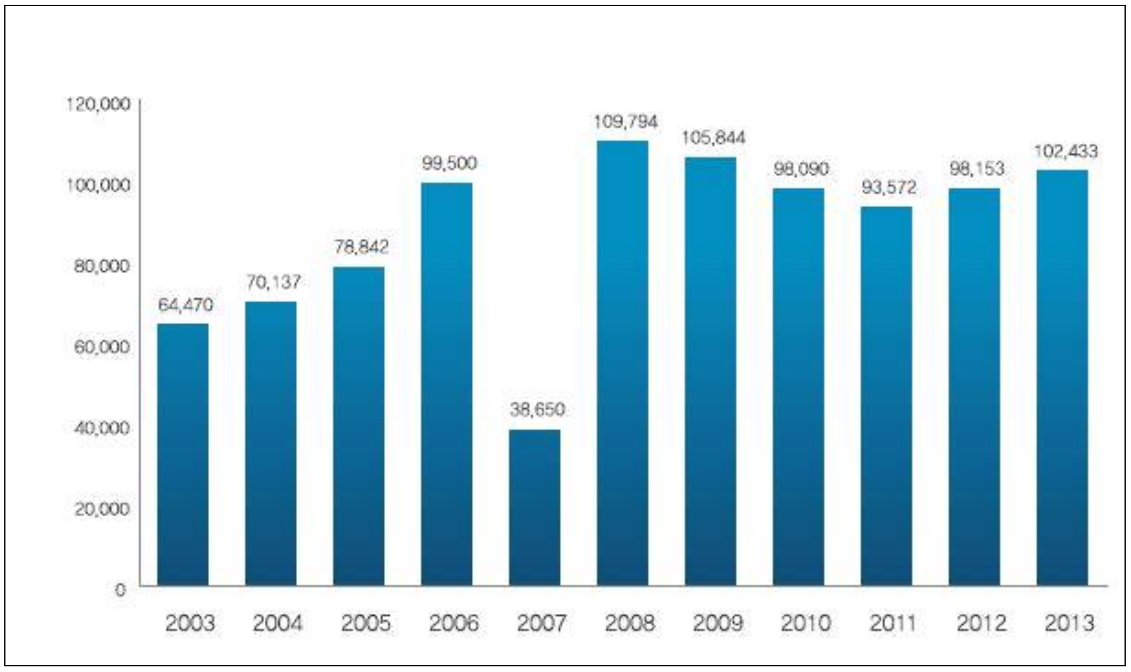
3.1정신교육관

堤岩里三一運動殉國二十三位之墓

三一運動周年紀念塔

4) 운영현황

(1) 관람객 현황



(2) 직원현황

구 분	인원수	비 고
관 장	1	화성문화원장
학예직	3	
행정직	2	
문화관광해설사	8	1일 2명씩 근무(10시 ~ 17시)
청소용역	1	오전 08시 ~ 오후 17시
합 계	**15**	

(3) 전시실개편현황

구분	전시내용	개편된 내용
1전시실	제암리사건	화성3.1운동과 제암고주리 학살사건(2018)
2전시실	우리나라의 3.1운동	특별전 학살, 끝나지 않은 역사(2017)

3. 역사문화공원조성(2017~)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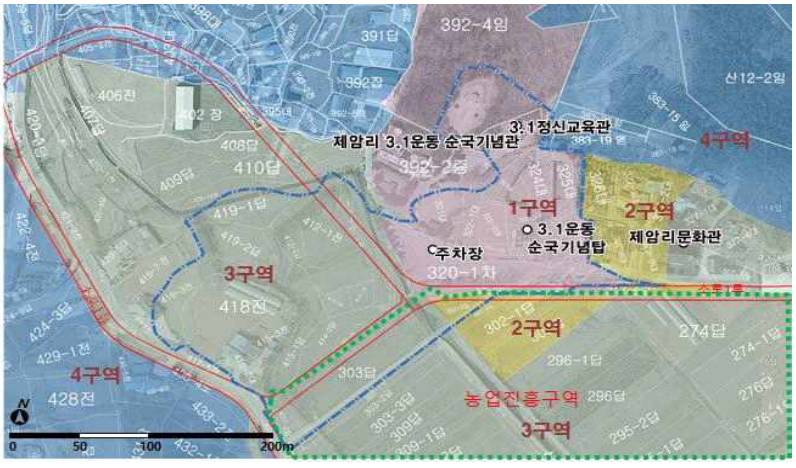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6. 04. ~ 2021.(예정)
- 사업위치 : 향남읍 제암리 32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7,020㎡
- 사 업 비 : 366.7억원(보상비:62.0, 공사비:263.7, 기타:41.0)
- 사업내용 : 역사문화공원 조성,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 신축,
  추모공간 조성, 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장 등

2) 추진현황

- 2016. 04. : 화성시 3.1운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6. 09. : 건립방향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 2017. 06. : 착수보고 및 추진협의회(1차)
- 2017. 08. : 자문회의 및 추진협의회(2차)
- 2017. 11.~12. :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07. : (가칭)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전시교육콘텐츠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예정)

3) 문제점 및 대책

- 농업진흥지역(8,537㎡) 해제 관련(道승인권한)
-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사적 제299호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 토지보상 협의 : 대상지 내의 사유지는 전체의 58~66%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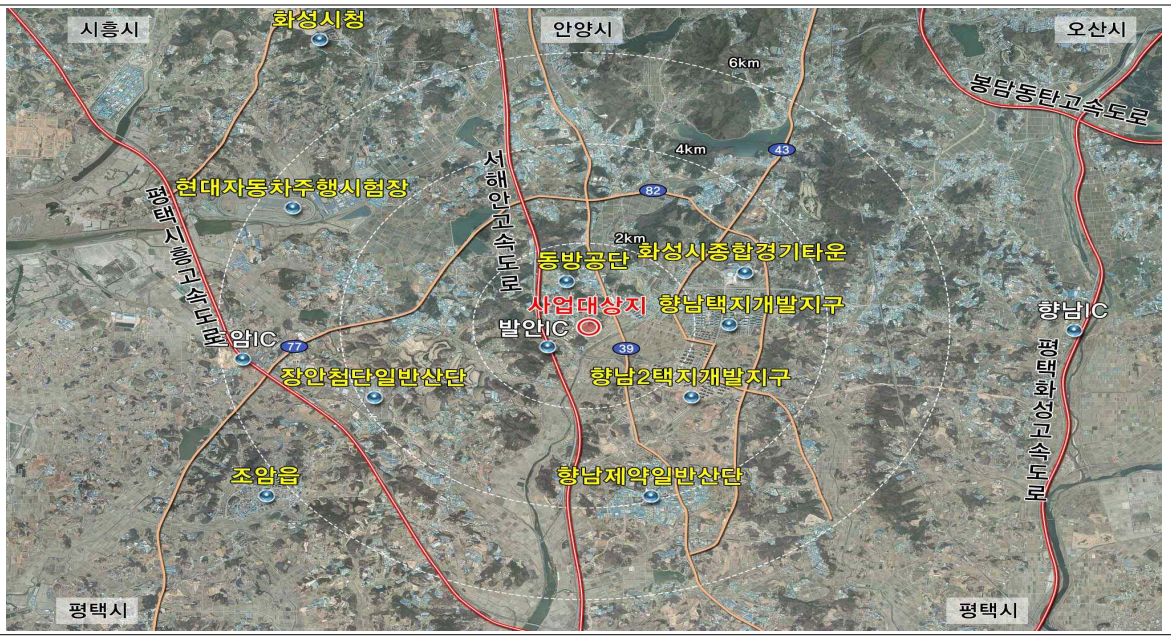
사업대상지와 문화재보존구역 경계

4) 기념관 건립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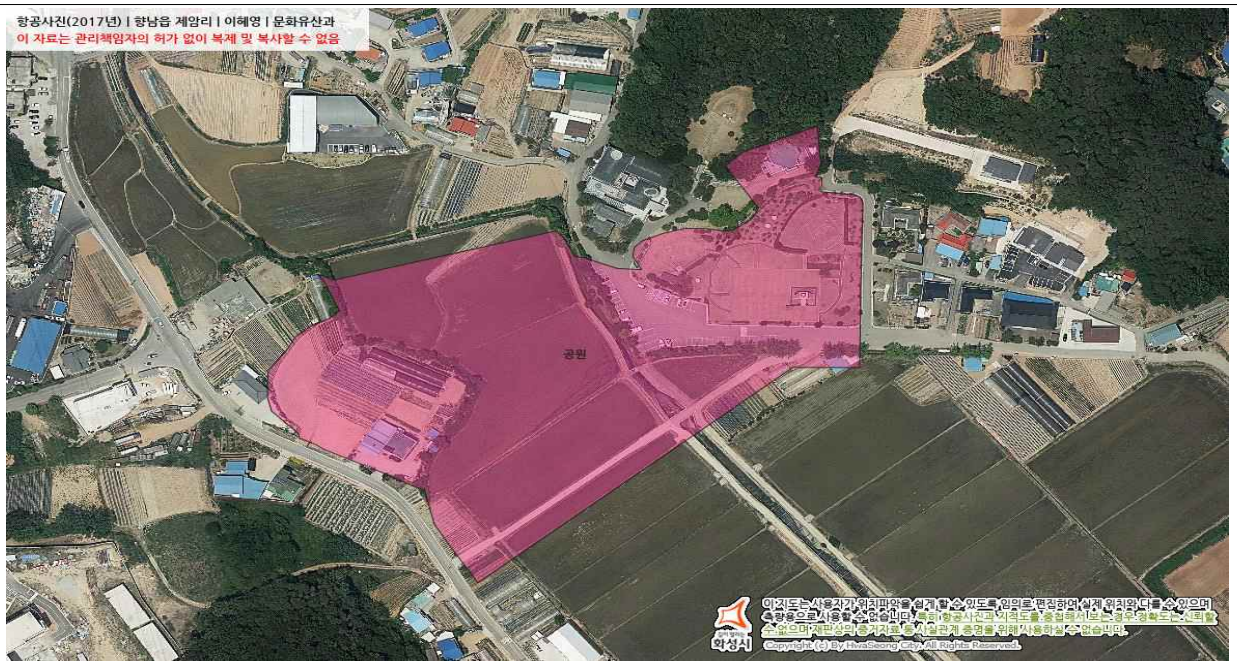
- 기념관의 건립기본구상안 마련
- 유물 및 컨텐츠 확보 : 기존의 제암리 기념관의 유물과 컨텐츠 확대 발전
- 기념관 건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위치도 및 공원조성계획도

▼ 위치도



▼ 공원조성구역계



기 조 발 제 ②

평택3.1만세운동 100주년 성역화 및 조형물 건립 방안

기조발제자 / 이 태 영
평택시 복지정책과장

1. 추진배경

2019년 3월 1일은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 만세 운동(三一萬歲運動)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3·1 혁명 또는 기미독립운동이라고도 부른다. 대한제국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고종의 인산일(=황제의 장례식)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이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대표 33인으로 부르며, 그밖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간접적으로 만세 운동의 개최를 위해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대표 48인으로도 부른다. 이들은 모두 만세 운동이 실패한 후에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게 된다. 약 3개월가량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했고,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집회인수가 106만여 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에 달하였다.

3·1 운동은 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 또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펴던 조선총독부는 민족분열책인 문화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되는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다.

평택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택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보고』에 따르면 평택지역 3.1독립운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으며, 3월 9일 현덕면 계두봉의 첫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평택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평택역이 있는 병남면을 비롯하여, 서면, 북면, 송탄면, 현덕면, 고덕면, 청북면, 서탄면, 오성면, 포승면 등 10개의 면에서 모두 만세시위를 전개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택의 3.1독립운동은 주변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월 9일 현덕면 계두봉의 첫 만세운동은 경기남부 최초의 독립운동으로, 경기도 수원지역의 만세시위의 영향을 받았으며, 평택의 독립운동은 경기도 안성지역(원곡과 양성)으로 확대되었으

며, 그 외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 3.1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사업이 2019년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377건, 경기도내는 84건으로 경기도 17건, 시군 20곳에서 6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유적지 및 기념물 건립, 기념행사, 학술행사, 공연, 책자발간, 무궁화심기, 역사교육, 마라톤대회, 시민공모, 골든벨 및 백일장, 중국 항일유적지 탐방, 무궁화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

우리시는 다가올 '2019년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평택 3.1독립운동'을 재조명해 시민 민족정신 함양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애국심 선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2018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된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평택3.1독립운동 선양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2. 사전 준비

2016년 9월 평택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을 통해 성역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평택 3.1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에서 학술적 재조명과 홍보를 통해 평택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1독립운동 항쟁지임을 알려야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평택시민들에게 3.1독립만세운동을 널리 알리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선혈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기리며, 평택시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평택시민들의 지역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민족정신 선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성이 충분해 보이고, 사업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상 주변에 민가보다는 관광자원들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와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지점임을 감안한 조형물의 제작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7년 4월 열린 『평택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평택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상지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현충시설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함께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 향후 유물을 정리하여 기념관 및 전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고, 기존 현충탑이 있는 현덕면 권관리 산109-46번지 일원에 공원을 정비하고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을결정하였다.

또한, 평택의 독립운동가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발굴용역 발주와 더불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기로 하였고, 사업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기존의 현충탑 및 보훈시설을 포함한 6,923㎡(2,094평)에 성역화를 위한 공원과 3.1운동 100주년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8년도 성역화사업 예산 30억 원을 승인받았다.

3. 추진경과

2017년 5월부터 2주간 평택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1독립만세운동 성역화사업 시민공감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ⅰ) 평택에서 펼쳐진 1919년 3.1만세운동이 경기 남부에서 제일먼저 일어났고, 가장 광포하게 펼쳐진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40%정도이며, 60%의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고,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주위사람으로 부터가 34%, 신문방송 30%, 교육은 26% 순이었다. ⅱ) 경기남부 최초로 만세운동을 시작한 장소가 평택호 일대의 계두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74%가 모른다고 답했다. ⅲ) 계두봉 인근인 현충탑 일원에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80%가 좋다고 하였고 대다수가 후세를 위한 교육차원의 목적을 꼽았다. 그리고 계두봉이 아닌 타 지역으로 한다면 평택역이 적당하다고 63%가 답했다.
이처럼, 평택의 3.1만세운동에 대한 시민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루어진 『평택의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용역』 결과에 따르면 평택의 독립운동가는 3.1운동 68명, 국내항일 47명, 해외 18명, 의병 8명, 학생운동 5명, 문화운동 2명 등 148명으로 71명을 새로이 조사 발굴했고, 독립운동 사적지로 기존의 12곳에서 19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31곳을 사적지로 정하였다.

평택시 독립운동관련 조사지역 일람(19곳)

지역구분	조사지명	당시주소	현주소
남부지역	평택역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 185	평택시 평택동 185
	부용산	진위군 부용면 객사리 · 두리 일대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 두리 일대
	죽백동 일원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평택시 죽백동
	진청학원 터	진위군 병남면 통복리 477	평택시 통복동 477
	원심창거주지 터	진위군 서면 안정리 175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75
북부지역	봉남리	진위군 북면 봉남리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은산리	진위군 북면 은산리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야막리	진위군 북면 야막리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금암리	진위군 서탄면 금암리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사리 · 수월암리	진위군 서탄면 사리 · 수월암리	평택시 서탄면 사리 · 수월암리
	두릉리	진위군 고덕면 두릉리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황구지리	진위군 서탄면 황구지리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안재홍 고가	진위군 고덕면 두릉리 646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646
	권익수거주지 터	진위군 북면 가곡리 313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313
서부지역	봉오산	진위군 오성면 학현리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백봉리	진위군 청북면 백봉리	평택시 청북읍 백봉리
	대덕산	진위군 포승면 희곡리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계두봉 · 옥녀봉 일대	진위군 현덕면 권관리 · 기산리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기산리
	오창선 · 이택화 거주지 터	진위군 오성면 양교리 150 / 164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150 / 164

『평택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에는 기존 평택호 현충탑 주변 부지에 토지 3,117㎡를 추가 매입하여, 총6,972㎡의 규모에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탑 건립과 광장을 조성하고, 기설치된 국가보훈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순국선열의 얼과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산109-6번지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로 100주년인 2019년 3월 이전에 부지확보 및 기념탑 건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유지를 제외한 기존의 시유지(2,415㎡)로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안으로 준비중이며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중으로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여 10~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정리되면 토지보상을 통해 공원 및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평택3.1독립운동기념탑 제작설치』는 성역화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기념탑 디자인의 예술성, 창의성, 독창성과 제작업체의 기술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기념탑 제작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과 추진일정, 응모 참가자격,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2018.3.19.부터 4.27동안 전국에 건립된 3.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우수시설 7개를 답사하여 벤치마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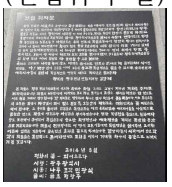
벤치마킹할 내용으로는 사업개요, 건립경위, 시설현황, 작품 특징과 지자체별 특성을 어떤 방식으로 담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로, 먼저 장소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념탑은 비교적 규모가 큰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았고, 기념탑의 높이는 14~17m이며, 공사기간은 8개월에서 1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
우리시도 앞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택호관광단지에 위치한 것은 큰 장점이다.

기념탑과 주변조형물의 배치는 원형의 기념탑 부지 가운데에 기념탑을 세우고 뒤편에는 부조 및 비문을 담은 일체형의 기록벽을 배치하는 등 조형물 배치방법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였고, 개인별 공적비를 소형으로 제작하여 성명, 생몰년, 공적을 새겨 병풍식으로 배치하여 독특하면서도 조화롭게 구성한 경우도 있었다.

(기념탑과 주변조형물의 배치 사례)

(개인별 공적비를 병풍식으로 배치)

기념탑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비문은 어떤 내용을 담아 어떤 형태로 제작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마다 설치된 기념탑의 비문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독립(만세) 운동사	독립운동가 명단	건립연혁 및 건립취지문	작품설명	기타
성남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	-	후면 기록벽 -내용(문화원장) -글씨(작가)	후면 기록벽	-
경기광주 3.1독립 운동기념탑	후면 기록벽	후면 기록벽 -서훈자17인	별도독립 	-	독립선언문 (후면기록벽)
용인3.1만세 운동기념탑	입구 계단벽면	입구 계단벽면 -순국자 3인 -투옥자59인	입구 계단벽면	-	-
안성3.1독립 운동기념탑	기념관	기념관	-	-	헌시 (후면기록벽)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	후면 기록벽 -서훈자1,800인 -연대순 기록	-	안내판	헌금자 명단비
광주독립운동 기념탑	별도독립 	기단 둘레 -서훈자1,000인 -훈격순 기록	별도독립 -내용(광복회장) -글씨(작가)	별도독립 (건립취지 밑) 	독립운동 기록사진 (후면기록벽)
여수항일독립 운동기념탑	기단 둘레	공적비(개인별) -서훈자 40인 -거주지,생몰년,공적내용	기단 둘레	안내판 	독립선언서 및 공약삼장 (기단둘레)

후면기록벽(비문)

기념탑의 기단둘레(비문)

위에서처럼 독립운동사, 독립운동가 명단, 건립취지문 등 비문은 대부분 기념탑 후면의 기록벽 또는 기단둘레, 계단벽면에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작품설명은 기록벽 또는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설명하고 있었으며, 독립운동가 명단의 경우 일곱곳 중 두곳은 명단이 없었고, 한곳은 순국자 및 투옥자 명단을 나머지 네 곳은 독립운동 서훈자를 훈격 또는 연대순으로 기록하

였는데 명칭이 “3.1독립만세운동”인 기념탑에는 명단이 없거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순국 및 투옥된 분들의 명단을 기록한 반면, 명칭이 “독립운동”인 기념탑에는 독립유공자(서훈자) 명단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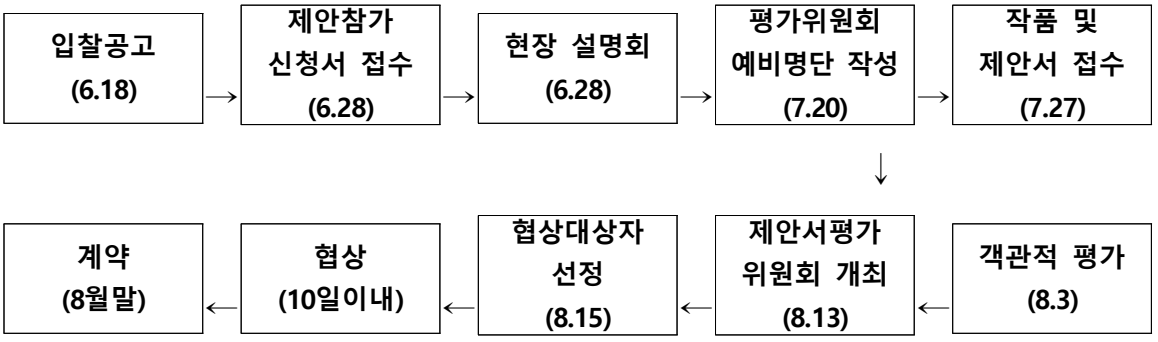
기타 독립선언문, 헌시, 헌금자 명단, 독립운동 기록사진 등을 후면기록벽 또는 기단둘레에 기록하였고, 건립연혁 또는 작품설명을 별도의 작은 비석 또는 안내판에 기록한 사례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석재로 제작한 조형물은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는데 10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조형물이 있는 반면에 지역 특성과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훌륭하게 승화시키면서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예술작품도 있다는 점에서 기념탑의 건립과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설치된 조형물들의 특징은 기단 및 바닥의 패턴을 원형 또는 곡선을 사용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으며, 호국보훈의 의미만을 강조한 엄숙하고 경직된 모습 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한 창의적인 작품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처럼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 후 6월 28일에는 현장설명회를 갖고 응모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14개의 전문업체가 참여했고 평가위원 모집에도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150명이 신청했다.

평택3.1독립운동기념탑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28일 현장설명회를 마치고 기념탑 제작과 관련한 질의회신을 하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현황과 함께 평택시 개발계획도, 공원조성 및 수목식재계획, 평택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결과 등을 참여업체에 보내는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평택의 독립운동의 의미를 잘 담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7월 27일 작품 및 제안서가 접수되고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사업내용, 일정 등에 대한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을 마쳐 8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9월중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기념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평택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디자인, 조형미술, 건축 등 해당분야 교수, 박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항목은 사업실적 및 기술능력 등 정량평가 20%와 예술성, 창의성, 효과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정성평가 60%, 입찰가격 20%로 구성되며, 정량 및 입찰가격 등 서류평가를 제외한 정성평가항목은 응모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를 듣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기념탑 제작에 특별히 감안해야 할 사항이나 보충설명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임원을 참관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19년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평택3.1독립운동’을 재조명해 시민 민족정신 함양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애국심 선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형물이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업체 선정 후 관련자,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기념탑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면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보고한 후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상적인 기념탑 제작 사례를 보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이 넘게 걸리지만 우리시는 3개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여건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주체들 간의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팀워크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가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출범은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식명칭과 주변 조형물에 기록될 독립운동가 명단 및 공적, 평택의 3.1독립운동사, 건립취지문 등의 내용 작성은 물론, 내년도에 거행될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의 본격적인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 향후과제

성역화사업은 평택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라사랑은 물론 평택시민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성공적 추진 외에도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훈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활용방법으로는 평택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강좌와 사적지 탐방 및 연계프로그램 발굴, 다큐멘터리 및 UCC 제작 등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토 론 문 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충분한 고증과 역사성 바탕으로 준비 필요

토론자 / 인 효 환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감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충분한 고증과 역사성 바탕으로 준비 필요

인효환/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감사

2019년 3.1절은 독립만세운동으로 일본에 항거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국가차원에서도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는 평택시와 함께 수년 전부터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준비를 해왔다.

평택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평택전역에서 전개되었는데 그 시발점은 3월 9일 현덕면 계두봉 만세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평택지역의 만세운동은 경기남부지역 최초로, 평택 전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친 만세운동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상징성이 있다.

평택시는 내년 3월 9일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평택지역 최초 발상지인 권관리 계두봉, 왕좌봉 일원을 성역화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념탑 및 각종 조형물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안성의 만세고개, 화성의 제암리 성역화 사업보다는 한참 뒤쳐진 것이지만 우리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보다 내실 있게 충분한 고증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더 큰 결실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

성역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1973년 방조제가 준공된 곳으로 평택군이 1982년 평택호관광지로 이미 개발한 곳이다. 특히 현재는 평택시가 이 지역 21만평을 확대 재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1980년대에 건립한 현충탑과 6.25참전용사비, 각종 보훈단체 추모비가 세워

져 있다. 또한 이곳에는 평택3.1운동 선양회가 2012년부터 건립한 평택3.1운동 최초발상지 기념탑 및 봉기도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성역화사업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역화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 평택의 호국공원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부여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이 기념탑과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체계적인 계획으로 유물관, 전시관, 교육관 등을 건립하여 후세들이 이곳을 찾아 교육도 하고 시각적인 견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과 교육을 통해 우리의 후세들이 3.1독립만세운동을 재조명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본받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성역화 사업이 순조롭고 계획성 있게 진행되어 이곳이 평택지역의 3.1운동 정신을 담은 호국공원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토 론 문 ②

성역화 사업, 상징성과 의미 충분히 성찰하는 노력 필요

토론자 / 황 우 갑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먼저 내년 평택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평택지역의 3.1독립운동사 자료 정리와 정신선양을 위해 조형물 건립 방안 토론회 자리를 준비해주신 정수일 회장님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오늘 발제를 맡아 이웃도시의 3.1운동 선양사업에 귀한 지혜와 정보를 나눠주고자 오신 화성시 이혜영 학예연구관님과 주무부서로서 민관이 협력해서 평택 3.1운동 100년 기념 조형물의 창의적 건립방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이태영 평택시 복지정책과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경기도내 독립운동 사적지 1·2위 도시들이 모여 항일운동 정신계승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100년'의 정신을 기억하고 한민족의 절대독립·철저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평택 3.1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억·전승하기 위한 상징 사업이 추진되어 반갑다.

오늘 이혜영 학예연구관께서는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안) 발표를 통해 화성시 독립공원을 29개 사적지중 제암리 지역으로 결정한 이유를 역사성, 연관성, 미래지향성으로 정리했다. 제암리는 아시아 홀로코스트 국제 여론화를 통해 조선민족의 아픔과 저항정신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준 대한민국의 대표적 항일자산이다.

또한 독립공원 조성의 주제로 추모, 기억, 치유라는 3가지 주제로 화성시 독립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하여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2006년 11월 평택알파탄약고 공간문화재생에 참고가 될 '베를린 홀로코스트기념관·기념공원'의 충격과 감동을 잠시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이태영 과장께서는 3.9 평택 현덕면 계두봉에서 최초로 시작한 평택 3.1운동의 성과와 역사적 의의, 100주년 기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평택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추진 내용과 계두봉 주변지역의 역사성에 비추어본 타당성과 평택호 관광지 연계라는 효용도 강조했다. 또한 내년 100년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평택 3.1독립운동기념탑 제작 설치'를 위한 국내 타 지역 사례 조사와 용역 추진 과정에 대해 정리했다. 이에 몇 가지 짧은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한 생각이다. 영국 왕세자비로 불의의 사고로 죽은 다이에나비를 추모하는 공원에는 다이에나비의 동상도, 조형물도 없다고 들었다. 이곳은 다이에나비가 좋

아했던 ‘분수’를 주제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기념과 기억과 전승에서 기념의 대상들이 바랐던 것의 상징성과 의미를 충분하게 성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끔 평택에서 성공한 도시계획 사례로 ‘이충분수공원’을 꼽는다. ‘분수’가 거슬리지만 평택에서 ‘광장’을 만들어낸 첫 사례다. 광장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는 것이 공공과 민간, 지역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화성이든 평택이든 의도적인 나무식재를 줄이고 공원 안에 그냥 광장하나만 제대로 만들자. 100년 전 3.1 순국선열이 그토록 열망한 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걷기에 방해가 되는 인위적 요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용기를 발휘해보자.

또한 ‘성역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앞으로 이 공간을 이용할 사람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기초 예절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3.1 순국선열들은 이곳에서 후세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그들과 영혼의 교감을 통해 만나기를 희망한다. 강요된 존경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감과 상상력과 자유를 얻도록 그래서 다시 오고 싶어지도록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3.1운동이 99년 전 10년간의 고독에서 벗어나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선열들이 창조적 상상력과 민족통합 능력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기념공원은 마음으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하는 근본 물음에 답해야하는 무거운 주제를 안고 가지만 그 선택의 자유는 개인에게 맡겨두고 도발적 편안함이 먼저였으면 좋겠다. 제사도 그 근본은 산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먼저인 공원이어야 하지 않을까 ?.

둘째, 기념비, 기념탑에 대한 문제이다. 기념비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만들면 좋겠다. 2006년 베를린 훔볼트대학 교정에 히틀러가 책을 불태운 자리에 세워진 기념비는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기억과 기념은 어떤것인가 생각하게 만든다. 기념비는 높게 하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는 흔한 기념비하나 없다. 다만 유리창 아래 지하로 책 하나 없는 흰색 서가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히틀러의 만행을 암시한 독일 시인 하이네의 시가 동판에 새겨져 있다. 이 정도면 큰 돈 안들이고 베를린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성공한 기념비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이런 점은 배우자. 또 한 가지 기념물 조성에서 아이들과 가족,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기념탑, 기념비를 생각해보자. 자료를 보니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 최근 미국서 활동하는 조형설치 작가 강익중이 만든 ‘순천만 국가정원 내 현충정원’이다. 현재 이곳에는 강익중 멋진 다른 작품이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 올해 6월 추가로 현충 정원도 이 작가만

의 독특한 참여의 방식으로 만들었다.

셋째, 지역 사회 통합 차원의 제안이다. 오늘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안다. 매우 축하할 일이다. 지역 시민사회에 3.1운동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년 안재홍 항일운동 100주년이자 3월 1일 기일의 맞아 매년 고향 평택서 열리는 독립운동가 안재홍 선생 추모행사와 희생자 추모제, 평양 묘소 방문, 평택에 본부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제 최대 항일운동단체 신간회 재조명 등도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함께 여는 방안과 원심창 의사도 함께한 평택 내 최대 규모 만세운동이었던 '4.1 평택역 만세운동'도 지역사회통합 차원에서 기념하면 좋겠다.

토 론 문 ③

평택 3.1만세 운동 성역화 사업

- 3.1독립만세 운동 활성화 방안 -

토론자 / 원 형 재
원심창기념사업회 유족대표

1. 3.1독립만세의거로 순국하신열사님께 명복을 빕니다

3월1일 밤이였다 -
저녁을 먹고 방에 있는데 마침 바다가 갈라지듯 한 지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밖을 내다 보니 산 정상 마다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 되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중략 -
나는 산정상에 올라서 목격한 광경을 잊을수가 없다.
불 타오르는 정상은 그야말로 장대한 화염의 바다였다.
실로 조선의 전도, 조선의 산이란 산이 죄다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그 광경이 얼마나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줬던가 -
-중략-
이와 같은 나날 그런 시대에서 소년시절 나는 3.1독립운동의 맹렬한 민족 항쟁 과정을 경험하였다.
불초 이 자식의 가슴에는 어언간 독립 정신이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소년은 문맹이였다
-중략-
저는 아무래도 독립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3.1 운동을 체험 하신 어머님은 그와
같은 곤난한 운동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끝나자 마자 평택 역전에 가서 머리를 깍고 오겠
다고 말씀 드리고 그대로 일본을 향해 떠나 버리고 말았다.
어머니를 생각한다-(병상 일기)-
1971년 6월19 일 日本 東京- (失口渡驛 岩崎病原)에서

이 일기는 1969년 3월1일자 일본에서 발행된 통일조선신문
(통일일보전신)에 실렸던 원심창의사의 일기입니다.

평택 3.1만세 운동을 경험 했던 어린 소년 원심창은 이때부터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 의식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3.1 독립만세 의거는 우리 고장 평택에서 애국지사를 만든 자랑스런 의거지이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적 교훈을 이여 가도록 우리 평택의 3.1만세운동 항거지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반듯이 성역화 사업이 필요로 하며 목숨 바쳐 순국하신 영령들과 이로 인해 옥고를 치루셔야만 했던 애국지사의 나라 사랑을 추모해야만 할 줄 압니다.

2. 3.1독립만세운동 활성화 방안

1.우선 역사적으로 항거한 104 분의 기념관이 조성되고 아직도 조명되지 않은 분들에 공적 조사가 조속히 이루워지길 바랍니다.

2.현덕면.계두봉. 옥녀봉. 평택역앞 원평동.팽성의부용산.기타지역 항거지를 연계하는 3.1 역사탐방. 순례길이 열려서 후손된 우리도 그날을 체험하는 만세 소리터 실천 체험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3.평택은 오늘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그 나라의 독립을 가장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군과 그 가족들이 평택에 살고자 그 인구가 급속히 늘어 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독립을위해 항거한 3.1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을 외국인에게도 알려 평택 시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될 것 입니다.

4.국제도시에 걸맞는 홍보책자 발행과 더불어 외국인도 참여 하는 행사로 비폭력 저항주의의 3.1독립운동 정신을 평택시민과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영문제작)
외국인과 함께 하는 행사 로써-(일반인 과 학생 참가)
(평화 걷기대회. 단축마라톤. 베드민턴. -기타.)

(문화행사- 백일장. 시.소설.수필.연극 .등 창작 작품)

5.선열들의 후손이나 애국지사 자녀등 청소년 장학재단을 설립 하여(보호가 필요한 가정 자녀의 포함) 장학 사업이 이루어지는 3.1 독립만세 재단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6. 평택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기념관이 없는곳 입니다.
3.1 독립 만세운동 성역화로 내 고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분들의 영령께 추모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루 속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 줄 우리의 자랑스런 정신 유물 은 바로
3.1 독립만세운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 론 문 ④

성역화 사업 방향성과 내용의 심도 깊은 논의 필요

토론자 / 김 기 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1. 들어가며

▸2019년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택지역의 3.1만세 운동을 재조명하고 선현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 펼쳐지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동안 평택지역의 3.1운동은 인근 안성이나 화성에 비해 그 강도나 지속성 측면에서 더 격렬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선양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평택지역의 3.1만세운동에 대한 체계적 정리 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다행히 평택시와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등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와 토론회가 최근들어 활발히 전개되어 온 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3차 학술토론회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제1차 토론회(경기남부 3.1운동과 평택 3.1운동 재조명)와와 3월에 진행된 2차 토론회(평택의 3.1만세운동과 성역화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세 번째 토론회로 주제가 '평택3.1만세운동 100주년 성역화 및 조형물 건립방안'이다.

1차와 2차 토론회는 평택 3.1만세 운동의 자세한 내용과 특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평택시가 진행한 '평택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용역'을 통해 독립운동 사적지의 정확한 위치를 획정하고, 사적지도 기존에 알려진 12곳 외에 추가로 19곳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용역' 결과에 따르면, 발굴한 독립운동가는 계열별로 3·1운동 68명, 국내항일 47명, 해외 18명, 의병 8명, 학생운동 5명, 문화운동 2명 등 총 148명이라고 한다.

▸2019년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100주년 성역화 사업과 조형물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택시는 2017년 4월 '평택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기존 현충탑이 있는 현덕면 권관리 산109-46번지 일원에 공원을 정비하고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 바 있고, 평택시의 발표에 의하면 '평택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다.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현 단계에서 성역화 사업의 기본 구상과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2019년 3월 100주년 기념식을 위한 시간도 촉박한 만큼 현재 진

행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평택시의 발표 자료와 화성시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100주년 성역화 및 조형물 건립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2100주년 성역화 사업에 대한 의견

첫째, 성역화 사업의 방향성 문제이다. 장소문제는 여러 논란 끝에 현재의 위치로 결정되어 더 이상 재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최초 발상지를 중심으로 한 성역화 사업과 동시에 가장 격렬한 만세 운동이 벌어졌던 평택역과 여타 3.1운동 사적지와 연계된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택의 만세운동은 안성이나 화성과 달리 분산형·지속형 운동이라는 점에서 어느 특정 장소가 대표적 상징성을 갖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위치는 최초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이 갖는 상징성이 있지만, 만세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상징성은 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평택지역 31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아우르는 성역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3.1운동 뿐 아니라 일제시대 평택지역 독립운동 전체를 포함하는 선양 및 성역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택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148명의 독립운동가 및 평택지역의 독립운동 특성과 정신을 기리는 성역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토지소유주와의 소유권 문제로 성역화 사업은 내년 이후에 본격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성역화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조형물은 평택 3.1운동과 독립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평택시의 발표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너무 짧고 촉박해 혹여 시간에 쫓겨 특징 없는 조형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많이 나오는 법인데, 기한에 쫓겨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그간의 과정이 불가피했다면, 평택시가 발표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평택3.1독립운동 선양 사업의 방향성 문제이다.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역화 사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평택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한시적 조직이지만, 독립운동 선양사업은 지속성이 요구된다.

특히, 3개 시·군이 통합된 평택시라는 점과 3~4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만세운동과 지속적으로 전개된 평택독립운동 역사를 볼 때, 3.1운동 선양사업은 평택의 정신, 선현들이 만들고자 했던 윤택하고 공평한 평택을 만드는 정신적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징성과 지역 대표성, 전문성 등을 고루 망라해 3.1운동 선양사업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 3.1운동 및 독립운동 선양사업이 평택의 지역적 통합과 평택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지속적 정신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M • E • M • O

M • E • M • O

M • E • M • O

M • E • M • O

M • E • M • O